

# 현대미술 주도 야수파 거장 '마티스' 만나볼까

##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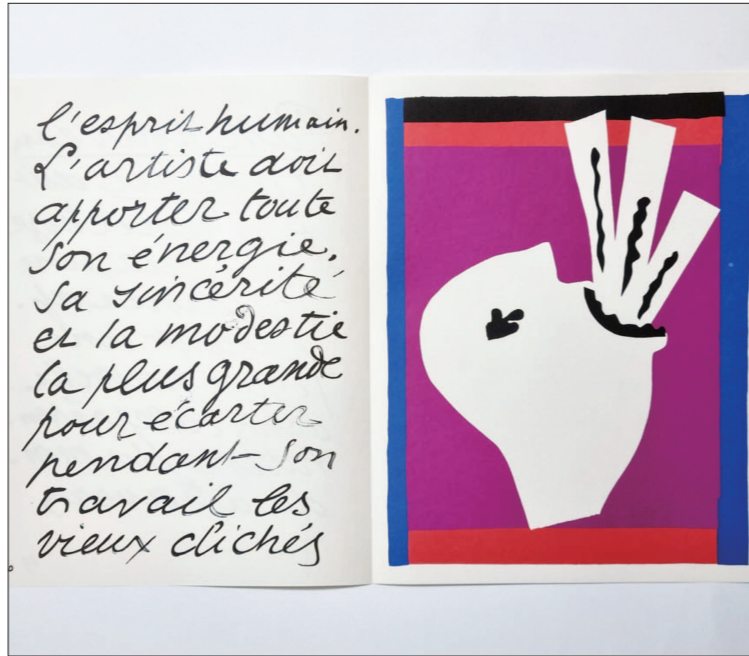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LOVE&JAZZ'전 내달 21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70여점 선보여  
희귀 아티스트 북·오리지널 프린트

파블로 피카소와 더불어 20세기 서양미술사의 흐름을 주도한 작가로 꼽히는 앙리 마티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아티스트북을 중심으로 프랑스가 낳은 현대미술의 거장 앙리 마티스 후기 작품세계를 살펴볼 수 있을 전망이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지난 7일 개막, 오는 4월 21일까지 야수파 거장이자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의 후기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를 'LOVE&JAZZ'라는 타이틀로 진행한다. 출품작은 판화 70여점이며, 1층

관장에는 아트웍을 구축해 관람객들을 자극한다. '포비즘'(Fauvism), 혹은 '야수파'로 불리는 작가군의 대표 작가로 알려진 앙리 마티스는 강렬한 색채와 독창적인 조형 언어로 전통의 틀을 과감히 깨뜨리며 현대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보색 대비와 원색의 대담한 활용, 거친 붓 터치와 격정적인 화면 구성에서 비롯된 '야수'와 같은 에너지는 유희뿐만 아니라 석판화와 스테인드글라스, 콜라주, 도예, 섬유 디자인 등 시각예술의 전반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번 전시는 종종색적이면서도 조화로운 재즈



'칼을 삼키는 사람(재즈)' (1947)



'수족관에서 수영하는 사람(재즈)' (1947)

의 리듬처럼, 색과 형태가 자유롭게 풀려나 마티스의 예술세계를 조명한다. 전시 작품 속에는 역경 속에서 멈추지 않았던 마티스의 뜨거운 창작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반복된 병마에 시달렸던 그는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던 1941년 이후에도 예술에 대한 열정과 탐구심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마티스는 이 시기 회화와 콜라주의 경계를 허문 '컷아웃' 기법과 혁신적인 '아티스트 북' 제작, 그리고 설계를 주도했던 방스 로사리오 경당(소성당)의 대규모 벽화 작업을 통해 새로운 예술의 경지를 개척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마티스의 대표적인 아티스트 북 'JAZZ' 등 그가 직접 편집하고 디자인한 희귀 아티스트 북과 오리지널 프린트를 선보인다. 색과 형태에 대한 그의 후반기 실험정신이 집약된 이 작품들은 마티스 예술의 본질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 끊임없는 탐구와 혁신으로 '20세기 미술의 선구자'가 된 마티스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행복과 기쁨, 환희의 순간을 나누고자 했다. 광주신세계갤러리 백지홍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에 대해 "광주신세계 개점 30주년을 기념, 대전에서

유료로 전시된 작품을 무료로 선보이게 됐다"면서 "마티스의 불꽃 같은 창작열을 마주하고, 거장의 작품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 마티스전이 성황리 열렸다. 앙리 마티스는 프랑스 북부 르사르캥프레스 출신으로 야수파의 대표 화가이자, 20세기 현대미술을 개척한 거장으로 평가 받는다. 파리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마티스는 22세에 그림과 인연을 맺었고,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화가의 길로 접어들었다. 1893년 파리 국립미술학교에 입학, 귀스타브

모로의 가르침을 받으며 원색의 대비를 활용한 강렬한 표현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앙데팡당 미술전에 출품하며 앙드레 드랭 및 모리스 블라맹크와 교류한 마티스는 이들과 함께 야수파 운동의 중심인물로 활약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주로 니스에 머무르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모로코와 타히티 여행에서 영감을 얻어 색채와 빛의 표현을 심화했다.

말년의 마티스는 형태와 색채를 더욱 단순화하며, 밝고 순수한 빛과 명쾌한 선을 통해 평면적 구성을 완성했다. 이러한 스타일은 '세기의 경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현대미술의 지평을 확장했다.

마티스의 마지막 역작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8년부터 1951년까지 제작한 방스 로사리오 경당의 벽화와 스테인드글라스다.

마티스는 이를 '최후의 작업'이라 칭하며 평생의 예술적 탐구를 집약한 걸작으로 남겼다.

마티스는 회화뿐만 아니라 조각, 동판화, 직물 디자인, 삽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혁신을 이뤘다. 대표작으로 '춤', '붉은방', '음악' 등이 있으며, 피카소는 "앙리 마티스의 배 속에는 태양이 들어 있다"며 색채의 마술사로서 마티스의 재능을 극찬했다.

한편 마티스를 위시로 드랭, 블라맹크 등이 대표 화가들로 분류되는 야수파는 20세기 초기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회화의 한 형식을 추구했으며, 그들의 회화는 굵은 선과 원색들을 사용해 강렬하고 대담하게 표현한 화면이 특징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세대·장르 초월...거장들의 도전적 콜라보레이션

'박규희X양방언 듀오 콘서트' 28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Gate Of Dreams', '정열대륙', '알함브라의 추억' 선사

2023년 일본의 요코하마, 오사카에서 선보인 '박규희X양방언 듀오 콘서트'의 감동이 광주에서 펼쳐진다.

27년 간 동양상을 융합한 음악 프로젝트를 소화해 온 양방언,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클래식 기타리스트로서 명성을 키워가는 박규희, 서로 다른 음악적 어법을 지닌 두 예술가가 만들어낸 음악적 시너지가 기대를 모은다.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인 '박규희X양방언 듀오 콘서트'를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연다.

제일교포 2세로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활약하는 양방언은 록,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등을 아우르는 독보적인 프로듀서이자 작곡가, 피아니스트다. 1996년 데뷔 이래 런던 필하모니, 로열 필하모니, 런던 심포니 등과 협업하며 8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고, 일본 NHK 애니메이션 '십이국기', 홍콩 영화 '런더블트', MBC 특별기획드라마 '상도' 등의 음악감독을 맡았다.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공식음악으로 'Frontier!'가 채택된 것을 계기로 한국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온 그는 2013년 '아

리랑 판타지'를 작곡해 합창을 포함한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했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아리랑을 편곡해 이승철 조수미 나윤선과 함께 공연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의 음악감독으로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60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 한국 관객과 만나왔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여제 자리잡은 박규희는 지금까지 9번의 국제 콩쿠르 우승을 기록했다. 특히 벨기에 프랭탕 국제기타콩쿠르에서는 최초의 여성 및 아시아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고, 2012년 스

페인 알함브라 국제기타콩쿠르에서는 1위와 청중상을 석권한 나소스(NAXOS) 앨범 발매와 스페인 전역 투어를 진행했다. 2012년 10월에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미국 데뷔 무대를 가졌으며, 마이스트로 세이지 오자와, 파비오 루이지, 유리 바쉬넛 등과 호흡을 맞췄다.

2024년 클래식 기타로 바흐의 작품을 재해석한 앨범 'BACH'를 발매한 그는 지금까지 예술성과 판매량에서 입지를 다진 정규앨범 9장을 발표했다. 빈 국립음대에서 알바로 피에리를 사사하고 스페인 알리칸테 음악원 마스터 과정을 거쳐 전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Gate Of Dreams', 'Song Of Moonlight', 'Who I Am' 등 양방언의 대표 레퍼토리를 비롯해 볼랑 디앙의 'Tango En Sky',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하카 세 타로의 '정열대륙' 그리고 '알함브라의 추억', 'Libertango', 'Again Main Theme' 등 다양한 곡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북구문화센터 관계자는 "동양상을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 프로젝트를 소화해 온 제일교포 2세 음악가 양방언과 세계적인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의 도전적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공연은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입장료는 전석 1만원, 문의 062-574-0292.

김다경 기자 alsqsl94@



박규희

양방언

## '우리가락 우리춤 배우기' 수강생 모집

전남도립국악단, 11~21일까지 선착순 접수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조용안)이 국악 강좌 '우리가락 우리춤 배우기' 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오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주 1회 90분 간 진행된다. 분야는 대금·가야금·한국무용·국악 가요·리듬타고(장구) 등 총 5개로, 화요일 초급 1반, 수요일 초급 2반, 목요일 중급 1·2반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국악가요와 리듬타고(打鼓)는 올해 첫 개설되는 강좌로, 국악가요는 국악 장단과 가락을 바탕으로

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창작 가요들을 배울 수 있으며, 리듬타고는 국악 창작곡 등 대중 친화적인 음악에 장구의 경쾌한 리듬과 몸짓을 더한 색다른 놀이 장구를 경험할 수 있다.

수강생은 11일부터 21일까지 전남도립국악단 누리집 또는 방문을 통해 선착순 모집하며, 수강료는 10회 6만원이다.

조용안 예술감독은 "도민들이 보다 다양한 국악 장르와 악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올해는 특별히 새로운 강좌들을 마련했다"면서 "신



전남도립국악단 국악 강좌 모습.

나는 우리 음악과 함께 일상 속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국악의 다양한 매력들을 만끽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립국악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다경 기자 alsqsl94@

## 출판 생태계 복원... '문학투어리즘' 재고해야

계간 '문학들' 보호 특진  
조진태 오문연 소장 제기  
'5·18' 공간 방문지 돼야  
'오월문학제' 등 통합 주장



조진태 소장

첨제를 거듭하고 있는 출판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한강 문학을 '문학투어리즘'과 연계하는 동시에 기존 '오월문학제'와 '아시아문학페스티벌' 행사를 통합하는 방식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인문도시 광주를 위한 모색이 활발한 가운데, 종합문예지 계간 '문학들'(발행인 송광룡) 보호에 수반된 특진 '노벨문학상' 이후, 광주' 중 조진태 소장(오월문예연구소)의 발제 '책과 문학의 도시 광주를 위한 하나의 상상'에서다.

우선 필자는 이런 행보와 함께 한강 문학을 '문학투어리즘'과 연계하는 사업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소설 '소년이 온다'의 무대인 상무관, 분수대, 전남도청, 망월묘지 등을 여행과 방문지로 엮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엮었을 경우 '소년이 온다' 속 작품무대들이 만큼 광주 밖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소설에 대한 흥미를 더 배가하고 다음 방문 때도 광주를 다시 찾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간들을 하나로 아우르기 위해 미국이나 독일, 그리고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기념관을 참조할 것 또한 잊지 않았다. 이는 공간과 사건을 콘텐트화하는데 중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이어 한강 문학을 주요 텍스트 겸 테마로 삼아 '세계문학축전'을 열어 개인의 창작과 작가들의 연대, 독자과 향유하는 공간을 새롭게 만

들어 가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한국작가회의의 '오월문학제'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아시아문학페스티벌' 행사를 통합하거나 '북 페스티벌' 이른바 책 박람회나 도서전 등의 여러 행사를 연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언급했다.

필자의 이런 제안들은 광주의 역사적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 준다

는 점에서 되새길만한 지점들이다.

광주시에는 이미 관련된 조례, 예컨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는 시장이 연도별 독서문화진흥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인문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조례', '문화예술진흥조례'와 '지역출판진흥조례' 모두 이를 위한 제도적 환경으로 명기돼 있다.

그러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이 병행돼야 하고, 시행과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진태 소장은 '책과 문학의 도시 광주를 위한 하나의 상상'이라는 글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제기한데 대해 "이 사안을 일회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그 틀을 구축해 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안이 5·18민중항쟁이라는 광주만의 서사를 의미하며 도시 정책에 실용할 수 있는 지와 광주의 도약과 전환을 위한 새로운 인문적 활력을 모색하는 것이어서 향후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감독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4일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예술위)는 2026년 개최되는 '제61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전시를 총괄할 예술감독을 오는 24일까지 공모한다.

4월 중순 1차 서류심사 및 전시계획안 프레젠테이션과 인터뷰로 구성된 2차 심사를 통해 예술감독을 선정,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접수 인원과 심사 기간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지원 신청자는 전시계획서와 포트폴리오를 첨

부해 공모 마감일인 24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양식 및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https://arko.or.kr/main/arko)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베니스비엔날레는 세계 최대 비엔날레 중 하나로 짝수년에는 미술전, 홀수년에는 건축전이 번갈아 열리는 국제행사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있는 자이츠미술관의 총괄 디렉터 코요쿠오(Koyo Kouoh)를 제61회 국제미술전 총감독으로 선정할 바 있다. 전시 일정 및 주제는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탈리아 베니스 카스텔로 공원 및 아르세날레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